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우계감탄사와 모달리티에 관하여

김선미*

1. 들어가며

1.1 연구목적

본고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우계감탄사(遭遇系間投詞)가 갖는 화자의 평가라는 측면이 모달리티라는 영역과 유사성 혹은 동일성을 갖는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탄사와 모달리티의 관련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고찰을 통해 일본인 학습자가 특정한 발화상황에서 적절한 한국어 감탄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와 선행연구

먼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모달리티와 감탄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모달리티란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형식>(마쓰오카 다카시(益岡隆志)·다쿠보 유키노리(田窪行則)(1992) 참조)을 말한다. 또한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탄사란 김선미(2007, 2012)의 정의와 같다. 즉 감탄사란, 통사적으로는 다른 문장의 구성성분으로부터 독립되어져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으며, 의미적으로는 화자의 감정, 사물을 인식하는 태도, 청자에 대한 작용 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다.

다음으로 본고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로는 먼저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탄사와 관련된 논문을 먼저 소개하겠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최현배(1961)의 품사분류와 예시가 선행연구로서 중요하며, 감탄사를 다룬 주된 연구로는 신지연(1988, 2001), 오승신(1995)등이 있다. 일본어의 감탄사(間投詞)를 대상으로 다룬 주된 연구에는 森田(1973, 2002), 森山(1996, 2000)등이 있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간투사와 지시사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로 金善美(2004, 2006a, 2006b, 2007)가 있고, 간투사 중에서도 「ええと」와 「あの(-)」를 대상으로 심적조작표식(心的操作標識) 기

* 金善美, Sunmi Kim, 天理大学准教授

능을 고찰한 연구로 定延·田窪(1995)가 있다. 田窪(2005)에서는 감동사를 심적정보처리기구(心的情報処理機構)와 관련시켜 논하는 한편, 감동사의 언어학적위치에 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定延(2005a)는 음성커뮤니케이션에서 관찰되는 여러 종류의 필러나 인터네이션, 힘춤,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 등에까지 고찰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김선미(2012)에서 상술하고 있듯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탄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나누어, [감정적인 것]과 [의사(의지)적인 것]으로 양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김선미(2012) 참조). 한국어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으로 신지연(1988:26-27)을 소개하자면, 신지연은 간투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의사전달적 통보 목적의 유무(±communicative)와 감동성의 유무(±emotive)라는 기준을 정하고, 청자를 가정하지 않는 단독 장면에서 주로 나타나며 감동성을 가지는 것을 [감정적 간투사]라 불렀다. 또한 상관적인 장면에서 청자를 가정하여 그 청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발화하며 감동성을 갖지 않는 것을 [의지적 간투사]라 불렀다. 일본어에서는 森山(1996:52)가 감동사를 [대타적(對他的)이 아닌 것]과 [대타적인 것]으로 양분하였다. [대타적(對他的)이 아닌 것]에는 情動的感動詞(わあ, おお 등), 구호(よっころしょっ 등)를 포함시키고, [대타적인 것]으로는 인사나 말을 걸 때 쓰는 말(よっ, ねえ 등), 응답사(はい, へえ 등), 머뭇거릴 때 쓰는 감동사(ああ, ええ 등)를 포함시켰다.

본고에서는 김선미(2012)에서 다루었던 감정표출형 감탄사 중에서 한국어의 조우계감탄사(遭遇系間投詞)를 대상으로, 김선미(2012)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전적인 기술이라는 측면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감탄사가 가지는 모달리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2. 조우계감탄사(遭遇系間投詞)란?

2.1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우계감탄사의 정의와 분류

김선미(2007, 2012)에서는 조우계감탄사에 대해 森山(1996)의 조우계감동사(遭遇系感動詞)의 개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조우계감탄사란,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나,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정보를 떠올렸을 경우에 쓰이는 감탄사’를 말한다. 또한 김선미(2007, 2012)에서는 정보의 소재에 따라 화자의 직접경험인지 간접경험인지를 전달하는 감탄사의 종류를 (1)과 같이 분류하고, 이러한 감탄사는 ‘발화시점에서 구정보가 활성화되거나 신정보를 획득한다,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정보 처리에 쫓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담화표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1) 직접경험(상황에 직면하거나, 사실을 기억해 냄) VS 간접경험(전문(伝聞))
을 나누는 기준: 정보의 소재가 자신의 영역인지 상대방의 영역인지에 따라 나뉜다.

- 직접경험 : きゃあ、わーい、으아, 앓, 이크 등
- 간접경험 : あら、まあ、え、(あ)、그것 참 등 (김선미 2012)

또한 김선미(2012)에서는 申(1988)과 森山(1996)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항목을 늘리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탄사를 아래의 <표 1>(원문:일본어)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1>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우계감탄사의 분류와 기능
(김선미 2012 (본고에서 기호를 일부 수정))

조우계감탄사	경험의 종류	화자의 상황평가
그것 참	간접경험(전문(伝聞)) 직접경험(생각났을 경우만)	처음으로 들었을 경우, 생각났을 경우의 놀람, 기쁨, 분개.
{이크, 제기랄}	직접경험	화자에게 불리한 상황일 경우
{아이고,에그머니,아니,이런,저런,어머니,맘소사,원(세상에)}	직접경험	처음으로 알았을 경우, 생각났을 경우의 놀람과 초조
{피, 찢, 흥}	직접경험	상황이 불만스럽다고 느낌. 경멸. 상대방에 대한 적의감의 표출
애개개	직접경험	경멸, 실망
{아차, 아뿔싸}	직접경험(생각났을 경우만)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것을 나타냄. 혼잣말일 경우가 많음.
어렵쇼	직접경험	경멸
{참, 아하}	직접경험(생각났을 경우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사실이 기쁘다는 걸 나타냄.
{あら, あれ, あれれ, おや, えっ}	직접경험	놀람
{おっと, おとっと}	직접경험	조금 의외인 사태에 직면했을 나타냄
{まあ, わあ}	직접경험	감탄함
{きゃあ, ぎゃあ, うわあ}	직접경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음
そんな	간접경험 (전문)	불만, 납득이 가지 않음
{ありゃ, ありゃりゃ}	간접경험 (전문)	동정, 의외의 전개에 대한 놀람
{チェッ, チッ, ふん}	직접·간접경험 (전문)	포기, 불만. ‘チェッ,チッ’은 혼잣말일 경우가 많다.
しまった	직접경험	화자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나타냄.
{くそ, ちくしょう}	직접경험	분개.

그러나 김선미(2012)에서는 위의 (1)과 <표 1>에 있어서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분류의 통일성 면에서 오류를 범했다. 즉 <표 1>을 반영한다면 (1)은 아래의 (2)와 같이 수정해야만 한다.

- (2) 직접경험(상황에 직면하거나, 사실을 기억해 냄) VS 간접경험(전문(伝聞))을 나누는 기준: 정보의 소재가 자신의 영역인지 상대방의 영역인지에 따라 나뉜다.

- 직접경험 : きゃあ、わーい、으아, 앓, 이크 등
- 간접경험 : そんな、ありや、ありやりや、그것 참 등

즉, (2)의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본고에서 수정한 부분인데, 간접경험을 나타내는 일본어 감탄사는 (1)의 「あら、まあ、え、(あ)」가 아니라 (2) 「そんな、ありや、ありやりや」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쓰이는 감탄사인 조우계감탄사는, 발화상황으로부터 참조할 수 있는 정보의 위치가 발화자 자신의 영역인지 상대방의 영역인지에 따라 어휘의 선택이 좌우된다.

2.2 일본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조우계감탄사의 기능을 가르치는 의의

김선미(2012)는 조우계감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우계감탄사는 종래의 인사나 응답사와 같은 간투사와 달리, 반드시 청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무의식적으로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많은 경우에 감탄사의 기능은 해당언어의 모어화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습득이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조우계감탄사라도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의 경우, 「아!, 앓!」과 같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음성표현도 존재하는 한편, 「애개개, 예그머니나, 어렵쇼」와 같은 특정 상황에만 나타나는 형식도 존재함을 김선미(2012)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하나의 어휘항목으로서 기재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러한 어휘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조우계감탄사로서 사용되는 말은 일본어에 비해 어휘화가 진행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개개, 어렵쇼, おっとっと」등과 같은 감탄사는 언어교육을 할 때 다루어야 할 항목이며, 기능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고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초급학습자가 이들 어휘를 정확하게 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 감탄사와 같이 어휘화가 진행된 말은, 해당언어의 모어화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명사나 동사와 같은 습득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3 한국어 조우계감탄사의 사전적인 정의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김선미(2012)의 지적을 이어받아, 기존의 사전

에서 실제로 한국어의 조우계감탄사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어 조우형 감탄사와 조우형 부사의 사전적인 정의

표제어	품사	사전적인 정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름)
애개(개)	감탄사	「1」 뉘우치거나 탄식할 때 아주 가볍게 내는 소리. 「2」 대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업신여기어 내는 소리.
이키 (=이크)	감탄사	「1」 몹시 놀라거나 뜻밖의 상황을 접하였을 때 갑자기 나오는 소리. 「2」 남을 슬쩍 추어주면서 비웃을 때 내는 소리.
제기랄	감탄사	언짢을 때에 불평스러워 욕으로 하는 말.
참	감탄사	「1」 잊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 「2」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
아이고	감탄사	「1」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2」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 「3」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4」 우는 소리. 특히 상중(喪中)에 곡하는 소리를 이른다.
아이고머니	감탄사	‘아이고 「1」’보다 느낌이 더 깊고 간절할 때 내는 소리. · 준말: 애고머니. · 참고 어휘: 어이구머니(준말: 예구머니, 북한어는 예그머니).
어머	감탄사	주로 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는 소리.
어머나	감탄사	‘어머’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맙소사	감탄사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거나 당할 때 탄식조로 내는 소리.
아차	감탄사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 <예> 아차 , 우산을 놓고 왔구나! / 아차 , 내 정신 좀 봐. 커피 끓이는 걸 깜박 잊었어요. <홍성원, 욕이오> / 아차 , 이때에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법정, 무소유>
아빨싸	감탄사	일이 잘못되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뉘우칠 때 가볍게 나오는 소리. · 참고 어휘: 어빨싸;하빨싸. <예> 아빨싸! 이건 참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마해송, 아름다운 새벽> / 강 포수는 뒤늦게 “ 아빨싸! ” 하고 제 한 말의 실수를 깨닫는다. <박경리, 토지>
어어	감탄사	「1」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나 일이 생각과 달리 되어 갈 때 내는 소리. <예> 어어 , 조심해! / 어어 , 이 친구가 도리어 날 놀리려 드네? / 어어 , 문제가 생각보다 쉽군! / 어어 , 현관문이 열려 있네. 도둑이 들었나? / 어어 , 저놈이 수곡리로 넘어가는 모양이네. 저놈이 미쳤나? <송기숙, 암태도>
어렵쇼	감탄사	‘어어’를 속되게 이르는 말.(북한어:어렵쇼)
아하	감탄사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가볍게 내는 소리.
치	감탄사	못마땅하거나 아니꼽거나 화가 날 때 내는 소리. ≒체, 췌.

		<예> 치 , 어렵도 없는 소리. / “ 치 , 네가 어떻게 노를 저어?” 한 친구도 빈정거렸다. <김원일, 토요일에 관한 명상>
피	부사	「 1 」 비웃는 태도로 입술을 비죽이 벌리며 입김을 내뿜을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예> 피 , 하기 싫으면 그만뒀. / 피 , 그런 답이 어디 있게, 나도 그런 답은 할 수 있어요. <김원일, 어둠의 혼> / 끝심이는 웃보다도 구렁이 얘기만을 묻는데 금방 속이 상해 피 하고 입을 뻐죽했다. <송기숙, 자랏골의 비>

김선미(2012)에서는 위와 같은 감탄사 중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에 음성이 유사하나 용법이 다른 「흥」과 「ふん」, 「켓」과 「チュッ, チッ」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김선미(2012)에서 다루지 않은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3. 번역시 나타나는 한국어와 일본어 조우계감탄사의 용법상의 차이

「흥」과 「ふん」, 「켓」과 「チュッ, チッ」은 서로간에 사용되는 용법이 다르므로 아래 예문과 같은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3) (적개심을 느끼는 상대방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피, 켓, 흥!}! 더러워서 못 살겠네 / 또 잘난 척이야!
 「くそ、チュッ!」! 本当に見てらんないな / 鼻持ちならないな!」
- (4) (청소를 혼자 하게 되었을 때, 모두가 돌아간 후에 혼잣말로)
 {チュッ, チッ, ふん!}! しょうがないな…。
 「치, 쫓!」! 별 수 없네…。」

예(3)은 화자의 불만의 표출이며 청자에게 노골적으로 그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상회화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예(4)과 같은 경우의 「チュッ, チッ, ふん」은 청자 앞에서 사용되는 일은 아주 드물며, 많은 경우 혼잣말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치」「쫓」 등의 뉴앙스에 가깝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혀를 차는 「쫓」에 관해서도 학습자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즉 한국어의 경우 「쫓」은 청자가 화자의 앞에 있을 경우라도 개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어의 경우에 「쫓」을 사용하는 것은 청자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들 앞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

「애개개」와 「あれ」, 「{아차, 아뻐싸}」와 「あちゃー」의 용법의 차

이도 설명이 필요한 어휘이다. 먼저 「애개개」와 「あれ」가 사용되는 발화상황을 살펴보고, 양 어휘의 용법의 차이점과 관련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김선미(2012)와 김선미(2013b)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 (5) a. (금액을 세어보고) 애개개! 이렇게 적어?
「あれ?こんなに少ないの?」
- b. (금액을 세어보고) #애개개, 이렇게 많아?
「#あれ?こんなに多いの?」 (김선미 2012, 2013b)

예(5)는 발화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5b)의 일본어의 용인도 판단은 「#あれ?こんなに多いの?」가 아니라 「あれ?こんなに多いの?」와 같이 자연스럽게 「あれ」가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애개개」는 화자가 직면한 발화상황에 대한 화자의 실망감이 표출되는 감탄사라는 점에서 (5b)의 한국어의 예문처럼 화자의 기대보다 금액이 많은 경우에 「애개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あれ」는 단순히 화자의 놀라움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므로 금액이 자신의 기대보다 적은지 많은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자가 놀라움을 나타내는 장면이라면 다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5)는 아래의 예(6)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 (6) a.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건네받은 돈의 금액을 세어보고) 애개개! 이렇게 적어?
「あれ?こんなに少ないの?」
- b.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건네받은 돈의 금액을 세어보고) #애개개, 이렇게 많아?
「あれ?こんなに多いの?」

예(6)의 「あれ」와 같이 단순히 화자의 놀라움만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감탄사가 쓰인 예는 아래의 예(7)과 같은 쓰임이 있다.

- (7) a.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건네받은 돈의 금액을 세어보고) 어? 이렇게 적어?
「あれ?こんなに少ないの?」
- b.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건네받은 돈의 금액을 세어보고) 어? 이렇게 많아?
「あれ?こんなに多いの?」

예(7)에서 쓰인 「어」는 화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발화장면에 대한 화자의 실망과 같은 감정의 표출은 없고, 중립적인 화자의 놀라움의 감정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あれ」처럼 아르바이트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쓰일 수가 있다.

다음으로 「{아차, 아뽀싸}」와 「あちゃー」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 (8) a. (시험이 끝난 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아차, 아뽀싸!} 답안지에 이름 적는 걸 잊어버렸다!
 「しまった! 答案に名前を書くのを忘れちゃった!」
- b. (시험이 끝난 후, 어떤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느냐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여유롭게 대답하는 상황)
 {물론이지, #아뽀싸!} 그 문제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
 「当たり前じゃん、#しまった! あんなのすぐわかるよ。」

예(8a)와 같이 「{아차, 아뽀싸}」는 화자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로서 그것을 잊어버렸다거나 잘못되었음을 깨닫거나 생각이 났을 때에만 쓸 수 있는 데 반해, 예(8b)와 같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담담하고 여유롭게 대답하는 장면에서는 쓰기가 어렵다. 흔히 「{아차, 아뽀싸}」와 「あちゃー」는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8a)(8b)와 같은 경우에 「{아차, 아뽀싸}」의 번역어로서 「あちゃー」를 쓰기 쉬우나, 「{아차, 아뽀싸}」의 번역어로서 「あちゃー」가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예(8a)에서는 일본어로서 「しまった」가 대응된다. 예(8b)에서는 문맥상 타당한 대답은 「물론이지」이며,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는 「当たり前じゃん」이 적합하다. 예(8b)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상황이 아니므로 「{아차, 아뽀싸}」를 쓸 수 없고, 「물론이지, 当たり前じゃん」처럼 간투사로 보기에 는 논의가 필요한, 일반적인 대답이 돌아온다. 여기서 「{아차, 아뽀싸}」를 쓸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일본어의 경우에도 「しまった」를 쓸 수 없다.

이렇듯 「{아차, 아뽀싸}」와 「あちゃー」의 용법이 다르다는 점은 아래의 예(9)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 (9) a. (아기가 컵에 든 물을 엷지르는 걸 보고 아기에게 들리도록)
あちゃー、こぼしちゃった。
 「앗! 물 엷질렀네!」
- b. (상사가 컵에 든 물을 엷지르는 걸 보고 상사에게 들리도록)
 #あちゃー、こぼしちゃった。
 「#앗! 물 엷질렀네!」

예(9)의 「あちゃー」는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관찰하고 있고 또한 그 일이 제 3자의 실수일 경우가 많다. 특히 화자가 「あちゃー」를 발화할 수 있는 경우란, 그 제 3자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의 사소한 실수일 경우에 한한다.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수에 대한 반응이므로 한국어로서는 「앗!」이 자연스럽다. 이 경우에 「{아차, 아뽀싸}」를 쓸 수는 없는데, 「{아차, 아뽀싸}」는 지나간 일에 대한 자신의 실수,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경우에 쓰이는 감탄사이기 때문

에다. 한편, 「あちゃー」의 경우, (9b)와 같이 자신의 직장 상사의 실수에 대해서 그 상사에게 들리도록 「あちゃー」를 발화하면 무례한 일에 해당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자신보다 연장자이거나 사회적 입장이 우월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은 일본어 학습자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あちゃー」의 오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선미(2012)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 조우계감탄사를 가르칠 때는 특정한 제스처를 같이 가르쳐야 할 경우가 많다. 「치!»라고 할 때 한쪽 입술을 실룩거린다거나, 「아차!»라고 할 때 무릎을 탁치는 제스처의 의미도 감탄사와 함께 가르쳐야만 온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4.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우계감탄사와 모달리티의 관련성

조우계감탄사의 사용은 청자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화자의 직접적, 간접적인 경험에 대한 화자의 상황평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모달리티와의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종래의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서법·양태라는 개념과 모달리티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영근(1991:294~295)에서는, 서법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영역이 일정한 동사의 활용형으로 구현되는 문법범주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양태는 서법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영역은 물론, 명사, 부사 등의 어휘범주와, 기타 어순 바꿈, 어조 등에서 두루 확인되는 의미영역을 묶은 것이라 했다. 즉 서법이란 눈앞의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가지는 의미가 동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문법범주임에 반해, 양태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 자체가 가리키는 의미범주인 것이다(고영근 1991:283).

이러한 양태라는 의미범주에서 관찰되는 양태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고영근(1991:284)은 의미분석에서 논의되는 양태성에는 슬픔과 기쁨 등의 정감성도 표현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원칙법, 확인법, 감동법과 같은 서법범주의 굴절형에 의해 표시되는 정감적 용법이나, 이와 관련되는 형용사, 부사, 감탄사 등의 어휘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는 **정감성(情感性)**도 크게 보면 양태성의 각도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태성의 각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감탄사의 예로서 <허, 아이고, 애고, 아서라, 자, 예, 아무렴, 글썄>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위에서 고영근이 지적한 **슬픔과 기쁨 등의 정감성 혹은 양태성**이라는 개념은 본고에서 지적하는 모달리티가 갖는 중요한 특성이다. 본고에서는 앞서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 모달리티의 정의를 내릴 때에, 모달리티란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형식>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행해진 감탄사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조우계감탄사를 분리시켜 고찰한 연구는 김선미의 일련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없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조우계감탄사가 갖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심리적 태도라는 면에 주목한 연구도 김선미의 일련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고영근의 지적이 유일하다. 김선미(2011,2013a)에서는 <설마, 하마터면, まさか>등의 부사가 반어적 의문문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며, 화자의 의심과 같은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들 부사는 <모달리티부사>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모달리티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우계감탄사는 슬픔과 기쁨 등의 정감성을 나타내는 발화상황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모달리티감탄사>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김선미(2011,2013a)에서, 종래의 연구에서 정도부사로만 다루어져 왔던 부사 중에서 <모달리티부사>를 분리해 냈듯이, 본 연구에서도 종래의 연구에서 <감탄사>로만 다루어져 왔던 어휘 중에서 조우계감탄사를 분리시켜 <모달리티감탄사>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의도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5. 끝맺음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우계감탄사에 관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한국어 혹은 일본어 학습자가 특정한 발화상황에서 적절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탄사를 사용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꾀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조우계감탄사의 여러 특징을 확인해 봄으로써 모달리티가 갖는 양태성 혹은 정감성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모달리티감탄사>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모달리티감탄사에 관한 더욱 상세한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注>

본고에 쓰여진 예문을 위해 협조해주신 韓國日本語学会第 15 回學術発表会の 회장에서 조언을 해 주신 분들과, 千田俊太郎氏, 玉井尚彦氏, 小田涼氏, 天理大学国際学部外国語学科 韓國・朝鮮語專攻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第 2 回西太平洋韓國語教育 / 韓國学国際學術會議에서 조언을 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参考文献>

- 최현배 (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金善美 (2004) 『韓国語と日本語の指示詞の直示用法と非直示用法』. 博士論文. 京都大学大学院.
- 金善美 (2006a) 「コ・ソ・アと i・ku・ce の感情的直示用法と間投詞的用法について」 『言語文化』 第 8 卷第 4 号 pp.761-790. 同志社大学言語文化学会.
- 金善美 (2006b) 『韓国語と日本語の指示詞の直示用法と非直示用法』. 風間書房(東京).
- 金善美 (2007) 「「遭遇系間投詞」に表れる話し手の事態評価について—現代韓国語と日本語を中心に—」 『韓国日本語学会第 15 回学術発表会論文集』 pp.51-55. 韓国日本語学会.
- 金善美 (2009) 「韓国語と日本語におけるムードと反語法について」 『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会 油谷幸利先生還暦記念論文集』 pp.365-374. 明石書店(東京).
- 金善美 (2011) 「반어적 의문문과 모달리티부사에 관하여」, 제주방언연구회 2011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2011년 8월 20일, 국립제주대학교.
- 金善美 (2012) 「現代韓国語と日本語の「遭遇系間投詞」に表れる話し手の事態評価について」 『ありあけ 熊本大学言語学論集 11』 pp.69-84. 熊本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 Sunmi Kim (2013a) "On ironical interrogative sentences and modal adverbs in Korean and Japanese",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znan, Poland. 2013년 3월 18일, 초대강연.
- 金善美 (2013b)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탄사와 모달리티에 관하여」, 第 2 回西太平洋韓国語教育/韓国学国際学術會議 (主催: 韓国学中央研究院・台湾中国文化大学), 要旨集 pp. 87-95, 台湾中国文化大学, 2013年 6月 24日, 招待講演.
- 고영근(1991)서법과양태의상관관계, 『국어학강좌 1 문법(I)』 279-297, 태학사.
- 益岡隆志 (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 森田良行 (1973) 「感動詞の変遷」 鈴木一彦・林巨樹 (編) 『品詞別日本文法講座 6 接続詞・感動詞』 178-208. 明治書院.
- 森田良行 (2002) 『日本語文法の発想』. ひつじ書房.
- 森山卓郎 (1996) 「情動的感動詞考」 『語文』 65: 51-62. 大阪大学国語国文学会.
- 森山卓郎 (2000) 『ここからはじまる日本語文法』. ひつじ書房.
- 오승신 (1995) 『국어의 간투사 연구』. 博士学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 定延利之・田窪行則 (1995) 「言語における心的操作モニター機構」 『言語研究』 108: 74-93. 日本言語学会.
- 定延利之 (2005a) 『ささやく恋人、りきむレポーター — 口の中の文化』 岩波書店.

- 定延利之 (2005b) 「「表す」感動詞から「する」感動詞へ」『言語』34-11: 33-39. 大修館書店.
- 신지연 (1988) 『國語間投詞(Interjection)의 位相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지연 (2001) 「감탄사의 의미구조」『한국어어미학』8:241-259. 한국어어미학회.
- 田窪行則 (2005) 「感動詞の言語学的位置づけ」『言語』34-11:14-21. 大修館書店.
- 田窪行則 (2010) 『日本語の構造－推論と知識管理－』. くろしお出版.
- 東郷雄二 (2000) 「談話モデルと日本語の指示詞コ・ソ・ア」『京都大学総合人間学部紀要』7: 27-46. 京都大学.
- 油谷幸利 (2006) 「接続形式による日朝対照研究」『朝鮮学報』198: 1-31. 朝鮮学会.

<표제어 정의 및 예문 참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Interjections of encounter and modality in Korean and Japanese

Kim Sun-mi

This paper focuses on Korean interjections, which are rarely taught in detail and therefore not sufficiently known to Japanese learners. Sunmi Kim (2007, 2012), who defines interjections of encounter and describes their functions, found that the interjections of encounter reflect the speaker's evaluation of a certain utterance situation. In this paper, I will point out the similar aspects shared by the evaluation of the speaker expressed by the interjections and different kinds of modality, and will argue how interjections are related to modality in Korean and Japanese.

***Keywords: Korean, Japanese, interjections of encounter, modality, utterance situation**

